전통한지, 미술을 넓히다

〈韓紙〉

영담한지미술관 '10中89'展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지에 오일' 등 다양한 형식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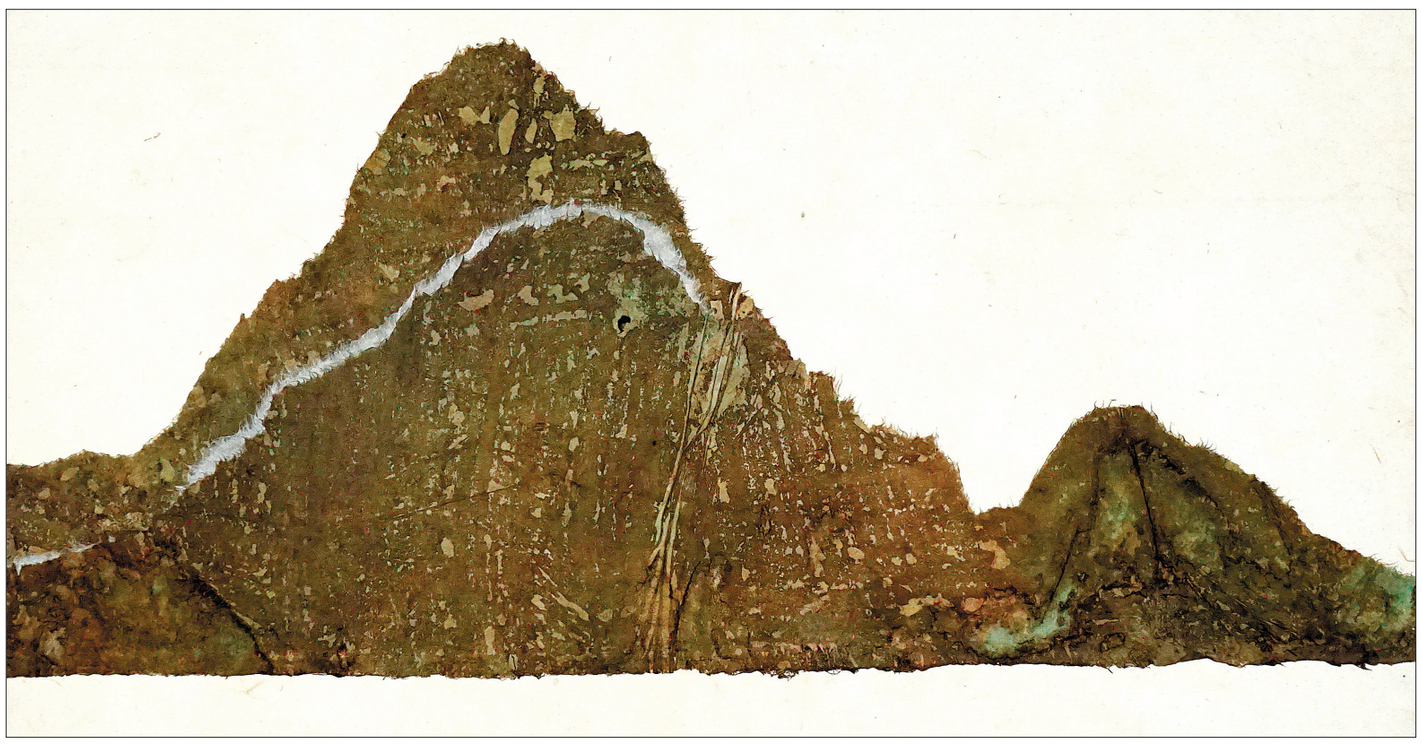
청도 영담한지미술관(관장 영담)은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초대전 '10中89'를 개최한다.

경상북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영담한지미술관 레지던스작가와 경북 · 대구 현역 작가 26명이 함께하는 전시로, △영담 스님의 '그 섬(43.0×35.0cm 자연염색 닥종이 꼴라쥬)' △김명해의 '自一生(15.0×20.0cm, 한지에 수묵)' △김병집의 '개울(80.0×40.0cm, 혼합재료)' △현정오의 '천지인(74.0×140.0cm, 한지에 혼합물감)' △이창효의 '자두-풍요, 45.0×45.0cm 한지에 오일)' 등 '한지에 수묵'을 비롯해 '한지에 혼합물감', '종이에 수채', '수묵채색', '캔버스에 오일', '한지에 오일'까지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영담한지미술관이 경북도청에 개관한 지 12년의 성상이 흘렀습니다. 한지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한지미술관도 동서양을 아우르는 순수예술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지'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예술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주제와 소재 모두 고정된 관념을 벗어난 다양한 미술을 보여준다.

영담한지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한지에 국한되지 않고 동서양의 순수예술을 소개, 전시, 홍보, 교육하는 공간으로 그 영역을 확장 · 변신하는 계기와 영담한지문화학교 건립의 태동이 될 것을 기대한다.



영담 스님 作, '그 섬' 43.0×35.0cm, 자연염색 닥종이 꼴라쥬.



최우식 作, '상' 72.7×53.0cm.



이창효 作, '자두-풍요' 45.0×45.0cm.

기획전문가이며 영담한지미술관의 운영고문인 김영호 화백의 기획으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는 영담 스님, 김상택, 김광한, 김명해, 김병집, 김영목, 김영호, 김용진, 김윤종, 김하균, 리홍채, 이미영, 박분자, 박해동, 박형석, 서무진, 소선영, 이다겸, 이영철, 이창효, 이태형, 최우식, 최한규, 현정오, 홍대권, 홍원기 작가가 참여했다.

제목 '10中 89'는 염원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일상에서 쓰이는 말 그대로 '많은 가능성'을 품고 살자는 뜻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와 그림을 감상하는 관객 모두 그림을 통해 많은 가능성 속에 있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전통한지연구가이며 닥섬유예술가인 영담 스님이 운영하는 청도 영담한지미술관은 국내 유일의 한지전용미술관이다. 영담한지미술관은 40여 년 동안 한국전통종이를 연구하고 작품 활동을 해온 영담 스님의 재현종이 40여 종 2만여 장과 400여 점의 한지미술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기획전과 특별초대전, 상설전 등으로 전시, 교육, 체험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한지를 표현재로 쓰는 현역작가를 발굴, 지원하고 경상북도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과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등으로 지역민과 함께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과 향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영담한지미술관은 우리나라 전통종이의 맥을 지켜온 사찰종이의 문화가 되살아나고 현대인의 다양한 문화활동의 새로운 표현재로 한지가 애용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 역시 한지가 대중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영담 스님은 1985년 강원도 원주에 '전통한지연구소'를 열고 전통한지제작과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86년 '동국대 개교 80주년 기념' 〈신수화엄경〉과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영인본 한지를 제작했다. 2007년 영담한지미술관을 열었으며 어린이한지미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지문화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영담 스님은 옛 스님들이 닥나무에 향수를 주어 기르면서까지 종이를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 사경(寫經)하고 불화(佛畵)를 그리며 종이문화를 발전시켰던 정신을 이어 수행과 작품 활동을 겸하고 있다. (054)373-3638.

철과 불상의 이야기

국립춘천博 '문화가 있는 날 갤러리 토크'
'철, 불상이 되다' 7 · 8월 마지막 수요일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상태)은 7월과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7월 31일과 8월 28일 두 차례 '철, 불상이 되다'라는 주제로 '문화가 있는 날 갤러리 토크'를 진행한다.

이번 '문화가 있는 날 갤러리 토크'는 관람객들과 원주 학성동 철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7월 31일 오후 4에는 조용한 학예연구사가 원주 칠불에 관한 내용을 흥미롭게 스토리텔링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8월 28일 오후 4시에는 권윤미 학예연구사가 문화재 보존과학자의 시선에서 철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와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원주 학성동 철불은 일제강점기까지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들판에 방치되었던 다섯 구의 철불을 말한다. 이 철불들은 일정한 공통양식을 취하고 있어 나말여초에 제작된 '원주철불', 혹은 '원주철불양식'으로 불린다.

'문화가 있는 날 갤러리 토크'는 사전예약자에 한해 전시 설명이 끝난 후 바리스타의 커피와 기념품을 제공한다. 개인과 단체 모두 예약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프로그램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홍보팀(033-260-1521)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춘천박물관 누리집(http://chuncheon.museum.go.kr/)을 참고하면 된다. (033)260-1500. 박재완 기자



원주 학성동 철불 5구

네팔 학생이 보내온 부채 그림

'설산동자 부채전' 8월 31일까지
대원사 티벳박물관 기획전시실

네팔 학생들이 보내온 부채그림이 전시된다.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은 8월 3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여름특별기획전시 '설선동자 부채전'을 개최한다. 설선동자 부채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네팔 안나푸르나 그림반 아이들〈사진〉이 설산의 풍경을 부채에 그린 부채그림이다.

네팔 학생들의 부채그림은 김규현 화백으로부터 시작됐다. 김규현 화백은 4년 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찾았던 네팔에서 미술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곳의 아이들을 위해 미술교육을 열었다. 그리고 현장 스님이 보내준 부채에 아이들이 히말라야 설산과 그곳의 풍경을 그려 보내왔다. 이번 전시는 네팔 전문 화가가 그린 그림과 현장 법사 부채 80점도 함께 선보인다. 부채 판매금은 전액 네팔 안나푸르나 그림반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 지원 기금으로 쓰인다.



우리 옛 선비들에게도 시를 적고 그림을 그려 넣은 부채로 한여름 무더위를 나는 풍류와 지혜의 전통이 있었다. 문명의 이기에 의해 점점 사려져 가는 예전의 멋들이다, 우리의 전통이 설산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네팔 아이들의 손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061)852-3038. 박재완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0

長壽漢醫院印 장수한의원

원장 이영수

▣ 진료과목 : 침구과, 내과·소아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 특수치료 : 약침요법
▣ 점심시간 : 오후1시~오후2시

진료시간
평 일 (오전9시 30분 ~ 오후6시 30분)
목요일 (오후 2시 ~ 오후7시)
토요일 (오전10시 ~ 오후2시)
일요일·공휴일 휴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48번지
(본오동 872-19)한양프라자 사거리(GS25시 건물2층)
TEL. 031)409-0541~2